

결혼이주여성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정 여가생활*

The Leisure of Multi-Cultural Family in Marriage Migrant Women's View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 수 차 성 란**

Departmen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ersity

Professor: Cha, Sung-Lan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leisure life on multi-cultural family from a view of marriage migrants women.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of 24 marriage migrants women who came from 7 countries such as Vietnam, China, Japan etc.. They are living in Daejeon city, Okcheon gun(Chungbuk), Gumi city(Gyungbuk) and the length of residence is ranging from 4 and half month to 13 years and 6 months. Data were analyzed by qualitative metho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and family leisure of marriage migrant women had positive effects on adaptation of her family life. Especially, in the early marriage stage, family leisure contributed women's emotional stability. Second, time was the most limiting constraints in family leisure of multi-cultural family. Third, early in the marriage, marriage migrant women who is not fluent in Korean language, customs, and courtesy hinders them from joining their family leisure. Fourth, leisure may seem to contribute to family life satisfaction, but marital relationships and household economy has to be settled beforehand.

Key Words :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 결혼이주여성(marriage migrants women), 여가(Leisure), 가족여가(Family Leisure)

* 본 원고는 2010년 후기사회학대회 집담회 발표자료를 토대로 부분적 수정한 원고임을 밝힙니다.

** 주저자 · 교신저자: 차성란(E-mail: slcha@dju.kr)

I. 서론

2000년대 이후 국내 입국하는 결혼이주여성 수가 급속한 증가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이들이 한국에서의 가정생활에 잘 정착, 적응하도록 꾸준히 대응 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2008년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다.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수립은 다문화가족의 국내 입국기간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만으로는 이들 가정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분적이며 단편적인 단계적 문제해결에서 이들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정체계 전반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내의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로서 가정의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서비스 기관이다. 두 기관의 기능적 통합은 국내의 일반가정과 동일한 구조를 하에서 다문화 가정의 건강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제 다문화가정을 요보호가정의 범주에 넣어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준을 넘어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서비스의 틀 속에서 여러 다양한 가정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이문화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생존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사회의 다양한 가족 유형 중 하나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존감, 성취감, 즐거움, 행복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여가 및 가족단위 여가생활은 그런 점에서 볼 때, 문화향

유의 기회로서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가족여가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문화생활 기회가 매우 낮아 가족관광이나 여행은 '1년에 한두 차례' 또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가족이 71%였으며, 가족끼리 노래방이나 극장가기 등은 62%의 가족들이 '1년에 한 두차례'나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어 도시에 비해 농촌거주 다문화가정은 관광, 여행, 노래방, 극장, 가족외식을 훨씬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이에 비해 우리 국민들은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70.8%), 등산(50.2%), 외식(42.9%), 산책(42.1%), 영화보기(39.0%)를 정기적인 여가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0.4%가 영화보기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밖에 외식(56.6%), 등산(45.4%) 등의 여가활동에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비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93-94) 대조를 이룬다.

다문화가정의 가족여가가 양적인 면에서 열악하다는 것은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및 가족여가 활동의 종류, 의미, 제약조건,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점 등 질적인 측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다문화가정 내 이주여성의 가족 내 위치가 낮고, 사회적 권익침해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들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승인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의 여가 경험의 실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생활적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다문화가정의 여가에 대한 내용은 이주여성의 생활실태라는 큰 연구틀 속에서 몇 종류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활동빈도(경기도가족

여성개발원, 2007;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2008) 정도만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여성을 가족구성원으로 하는 다문화가정에서 이주여성 개인의 여가와 이들의 관점에서 가족여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여가생활에 대한 탐구적 연구로서 이후 관련 연구의 선형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가정의 여가생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들 가정의 가족여가생활 향상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가정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과 여가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여성들의 한국생활 정책에 있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족여가와 가정의 체계 유지적 기능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게 된다. 다문화가정은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주변적 지위의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보편적인 경우로 여겨진다. 이러한 특성은 다문화가정이 일반 가정에 비해 이들 가족여가환경에서 더 많은 여가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및 결혼이주여성 411명을 대상으로 가족외식, 가족동반 친목모임, 가족동반 관광/여행, 영화감상, 노래방 등의 여가활동, 미술과, 박물관 등 문화 활동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했을 때, 이주여성들은 특히 여가활동의 빈도가 낮았으며, 친목모임을 제외한 그 밖의 가족외식, 관광/여행, 문화활동 등에서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 집단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2008).

다문화가정에서도 결혼기간, 여성의 연령, 국적 등에 따라 여가활동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기간이 짧은 부부,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여가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적의 경우 중국 한족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다른 국적의 다문화가정에 비해 외식, 가족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며,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가정은 가장 활동 빈도가 낮다고 한다(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다문화가족의 경제상태는 가족여가활동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21.3%인데 비해 고소득층인 500만원 이상은 2.1%에 불과하였다(김승권 외, 2009). 같은 해 조사된 한국복지패널(2009)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332만 2천원인데 비해 여성결혼이민자 78.6%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 내 남편의 직업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단순노동직, 일용직 등의 직업을 갖고 있는 남편들은 주 5일근무제와 무관하며,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가족과 여가시간을 함께 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뒤따른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2010)에 의하면 아내에 비해 남편들은 사회문화적 시간, 여가생활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 반드시 남편이 아내에 비해 더 많은 임의사용시간이나 여가시간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숙재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여가활동을 인식하는 의미와 참여 동기에서 차이가 있어, 소득이 높고 부채가 없는 집단이 더 여가로 인식하고 더 자발적

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문화가정 내 남편의 직업적 지위나 평균 소득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여가 의미나 참여 동기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일 가능성이 낮아진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가능한 여가시간, 비용,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있어 더욱 열악한 여가환경에 놓이게 된다. 농촌의 기혼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부담을 안아야 하며, 농촌노동력의 부족으로 가사노동자, 농업생산자, 기타 경제활동자, 지역 사회 활동자(한경미, 1997) 등 다중역할을 맡는다. 특히 밭농사, 비닐하우스 농사를 위한 노동은 남성들의 참여 없이 여성들이 혼자 해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김주숙, 1980). 농가의 가계경제 측면에서 보면 작물수확시기에 따라 부정기적인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지불이라는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용가능한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양적, 질적인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 내 문화회관, 여성회관 등에서 여성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족여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수준은 열악하다. 농업인 부부의 여가활동은 TV 시청 등 미디어 이용, 취미생활, 교제 등이 여가시간의 80%를 차지하며, 학습, 관람, 문화행사 등의 여가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7).

2.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여가

다문화교육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의 희망여가는 응답자의 65.0%가 관광/여행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어떤 여가활동 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들이 본국의 문화를 이용하는 정도로서 모국의 음식을 먹는 경우가 유학생이 49%, 외국인 근로자가

26.8%인데 비해 18.8%로 가장 낮았으며, 모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한달에 1-2회 시청하는 비율이 외국인 근로자가 28.6%, 유학생이 35%인데 비해 이주여성들은 10.9%에 지나지 않았다(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2008).

다문화가정 내 이주여성들은 여가를 통해 자신의 문화정체성 확인 기회를 갖기 원한다. 문화관광체육부(2008)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주민들이 관람하고 싶어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모국의 영화(25.0%), 모국의 대중예술행사(22.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에 비해 한국영화(15.4%), 한국의 대중예술행사(10.3%)는 낮게 나타나, 모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가정 내 이주여성들은 이주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이전에 가정 내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가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가정관리자로서 이주여성은 가족여가가 휴식과 즐거움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여가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루의 생활시간 중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담당자로서의 역할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여성노동가상법정 자료실, 2006, 김하영, 2008에서 재인용). 이들에게 가족여가는 또 다른 가사노동의 과업이 추가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가족여가의 의미 및 동기라는 차원에서 보면, 가족여가가 자녀교육이라는 가사노동의 역할수행으로 인식될 수 있다. 가족여가가 자녀의 사회심리적 안정감이나 책임감, 사교성 등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어머니인 이주여성에게 가족여가를 자녀교육활동의 하나로 접근하도록 만든다. 가족여가의 본질적인 동기보다는 자녀교육 담당자로서 가족여가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가족여가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자녀를 위해 기꺼이 가족여가에 수반되는 노동을 수행하고

자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가족여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족원 개인의 성장과 가족의 유대감이나 전체를 위한 시간 투자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가족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 때문에 비자발적, 또는 강제되는(Kelly, 1983)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가족여가의 모든 참가자가, 참가시마다 가족여가를 통해 순기능적 영향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가활동에서 부모들이 의무감을 갖는다거나(Pamicka, 1995) 가족돌보기의 일차적 책임을 느끼는 어머니에게 가족여가는 의무적 역할수행인 ‘준여가(semi-leisure)’(Homa, 1989, 윤소영 외에서 재인용)이거나 ‘가족돌보기 영역의 가사노동’이 될 수 있다. Bella(1992)는 때문에 가족여가를 ‘여성의 일’이라고 말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전통적 가족가치는 이주 여성의 가족여가에 대한 자발적 참여결정을 어렵게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에서 전통적 가족가치가 구체화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확대가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부모세대는 경제력이 부족한 아들과 동거하는 사례가 많다. 아들의 결혼에 경제적, 정보, 시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한 시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도 자녀세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사결정 시점에서 적극 개입한다. 가계경제, 손자녀 양육방식, 부부관계 등에 시댁 가족구성원들이 관여하며, 시댁 가족구성원들이 포함되는 가족여가에서 이주여성은 참여의 자발성을 갖기 어렵다. 여가활동의 본연적 특성이 자발성(Dumazedier, 1962, 민웅기, 2006에서 재인용)이라는 점을 보면 이러한 가족여가활동은 이주여성에게 여가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여성이 가족여가의 주체가 되어 여가활동의 종류와 방식을 결정하고 가족

여가활동에서 적극적인 위치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첫째, 다문화가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개인적인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들의 개인적 여가가 한국에서의 가정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가족단위 여가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가족단위로 어떤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여가제약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가정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정에서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이들 가정의 여가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여가생활이 한국에서의 가정생활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조사내용

질문은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개방형의 문항 리스트를 준비하였으며, 생활만족도는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여가생활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생활의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여가생활이 이들의 한국에서의 가정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표 1〉 질문내용

연구내용	질문
개인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여가활동 여부 - 여가활동 유형 - 여가의 의미 - 개인여가에 대한 바람
가족여가 참여 및 여가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여가활동에의 참여여부 - 가족여가활동의 종류 - 가족여가활동시 어려움 -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바람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본 한국에서의 여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에서의 여가활동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가활동참여의 어려움 - 개인 여가활동과 한국에서의 가정생활적응
가정생활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이유

출발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이거나 입국 기간이 짧은 경우,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가정의 여성을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가족단위 여가생활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는 탐구적 성격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면담 현장에서 연구의도에 부합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여가생활실태와 그들의 느낌, 생각, 정서에 대한 내용을 얻어내기에는 연구주제가 그들에게 어렵게 여겨지고 있었으며, 더욱이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대전시, 충북 옥천, 경북 구미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담당직원에게 조사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을 의뢰하였다. 한국어교실 고급반 수강자 및 센터 내 통역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9명과 개인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실 수강자 5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을 조사대상으로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가 진행되었다.

대상자가 취업여성인 경우, 직장에 양해를 구해 연구자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수강생의 경우 수업이 끝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일반음식점의 독립된 실 안에서 센터의 담당직원, 센터에 근무하는 통역담당 직원과 함께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면담하였다. 개인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실 수강자의 경우, 연구자가 교실을 방문하여 담당 한국어 교사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에 대한 직접 면담 및 관찰을 하였다. 연구방법은 1 대 1 면접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친구관계에 있는 3-4명이 함께 자리한 상태에서 면접은 1 대 1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모여 함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한국에서의 결혼기간이 길고 한국어가 능통한 결혼이주여성이 중간에서 질문과 답을 통역해주었다. 그 중 한국어교실 수강자 1명은 남편이 동행하여,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통역을 해주어 면담에 도움을 받았다. 또 다른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주여성 1명은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아 센터 내 통역담당 직원이

일일이 질문과 답변을 중간에서 통역해주었으며, 센터 내 상담실을 이용하여 면담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19세에서부터 47세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19세에서 27세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으며, 이에 비해 중국 출신 여성들은 조사자 8명 중 4명이 40대로 연령이 높았다. 여성들의 직업은 무직은 경우가 16명(66.7%)이었고, 통번역사를 포함하여 사무직이 7명(29.1%), 생산기능직이 1명(4.2%)이었다. 남편의 경우 무직 4명(16.7%), 사무직 5명(20.8%), 자영업 6명(25.0%), 기능직 5명(20.8%), 전문기술직 3명(12.5%), 경영관리직 1명(4.2%)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12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4명(16.7%), 중학교 졸업 3명(12.5%)순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1명(45.8%), 대학교 졸업이 4명(16.7%) 순이었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에 대해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부한 경우가 3명(12.5%)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은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8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국기간은 4개월 반인 경우에서부터 13년 6개월까지 범위가 넓었다.

2. 개인여가활동

개인여가활동은 응답자 24명중 23명이 현재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하지 않은 1명은 남편과 갈등관계에 있어 개인 및 가족 여가활동은 물론 한국 내에서의 가정생활 유지에 대한 동기를 상실한 상태였다.

1) 집안과 집 주변 중심의 개인여가활동

개인여가활동의 종류를 중복 응답 처리한 결과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에 제시된 내용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여가활동 실태를 그대로 파악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여가활동의 목록을 제시하여 자신의 경우에 해당되는 여가활동을 응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여가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활동들을 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응답한 여가활동의 개수도 결혼이주여성에 따라 1개에서부터 6개까지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이 응답한 활동은 음악감상, 노래부르기 등 음악과 관련된 활동이 5회의 응답이 있었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이나 영화감상이 5회, 그리고 걷기 또는 산책이 5회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개인여가활동이었다. 여가활동의 유형별 분류에 의하면, 취미활동이 17회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여가활동공간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17회, 집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20회로 다소 많았다. 등산의 경우도 집 주변의 산을 찾는다고 하여 집 주변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여행은 1회 응답이 있었으며, 여행을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이와 함께 매우 다양하게 영화감상, 운동, 음악감상, 음식만들기 등을 개인여가활동으로 답하였다.

2) 모든 가용시간은 한국어 습득을 위해

개인적인 여가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했을 때, 마음이 편해진다(1, 2, 20)거나 기분전환(17, 22), 마음의 휴식(15), 즐거움(2, 9), 스트레스 해소(6, 9, 19)에 도움이 된다는 여가를 통한 정서적 기능을 개인적 여가의 의미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관심이 한국어를 가능한 빨리 습득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직업		교육수준		국적	입국 기간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1	24	37	생산기능직	무직	중졸	고졸	베트남	3년6개월
2	24	44	통번역사	사무직	고졸	대졸	베트남	2년4개월
3	24	43	무직	무직	고졸	고졸	베트남	3년5개월
4	25	51	무직	자영업	고졸	응답 거부	캄보디아	5년6개월
5	20	38	무직	자영업	초졸	고졸	베트남	4개월반
6	47	47	과외교사	자영업	고졸	중졸	일본	13년6개월
7	34	38	통번역사	무직	대학원졸업	대학원졸업	러시아	7년10개월
8	38	49	무직	사무직	대졸	대학원졸업	중국	1년6개월
9	43	44	무직	전문 기술직	대졸	대학원졸업	중국	12년
10	34	45	무직	사무직	고졸	대졸	중국	4년
11	40	40	무직	무직	중졸	고졸	에리트리아	11년10개월
12	42	47	무직	경영 관리직	고졸	고졸	일본	7년4개월
13	43	48	무직	사무직	고졸	고졸	필리핀	6년10개월
14	34	44	통번역사	자영업	대졸	고졸	중국	6년5개월
15	46	51	무직	생산 기능직	고졸	중졸	일본	13년
16	23	41	무직	생산 기능직	고졸	고졸	베트남	3년7개월
17	31	51	무직	생산 기능직	무학	중졸	베트남	3년11개월
18	27	42	사무직	생산 기능직	고졸	고졸	베트남	5년 10개월
19	35	37	사무직	전문 기술직	고졸	고졸	인도네시아	12년
20	33	35	사무직	전문 기술직	고졸	전문대	중국	9년1개월
21	19	37	무직	사무직	초졸	모름	베트남	1년 1개월
22	42	48	무직	자영업	초졸	모름	중국	7개월
23	29	42	무직	기술직	초졸	고졸	중국	8개월
24	41	47	무직	자영업	중졸	대졸	중국	1년3개월

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틈만 나면 그러한 시간에는 항상 한국어 공부를 한다는 식의 응답을 하였다.

“여가 있을 때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 책을 좀 봅니다.”(14)

“한국말 공부 때문에 항상 한국영화를 보고 있어요.”(8, 10)

〈표 3〉 개인여가활동

장소	구분	활동	빈도	
집 안	취미	음악감상, 노래부르기, 노래교실, 노래방	5	17
		인터넷	5	
		음식만들기	3	
		독서	1	
		십자수	1	
		정원가꾸기	1	
		영화감상	1	
집 주변	학습	한국어공부	4	20
		미용학원	1	
		요리학원	1	
		컴퓨터	1	
		종이접기배우기	1	
	운동	걷기, 산책	5	
		등산	1	
		운동, 홀라후프	1	
		당구	1	
	기타	친구집 방문	3	
장보기		1		
지역사회	여행	여행	1	1
무응답			1	1
계			39(중복응답)	

“한국생활 적응, 부부관계, 가족관계 좋아져요. 여기 기분도 좋아요. 처음 왔어요. 힘들어요. 처음 왔을 때 힘들어 한국말도 못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빨리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해요, 빨리 적응하고 싶어요.”(24)

3) 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수단으로서의 개인 여가활동

미용기술학원, 요리학원, 종이접기학습 등은 통계청의 여가활동 분류기준으로 볼 때 일반인의 학습에 해당된다. 여가활동으로서 일반인의 학습은 다양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 취미생활을 위한 학습에서부터, 교양 또는 문화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직업적 능력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단순한 지식 습득 등. 본 연구의 4번, 11번, 13번 사례에서 제시된 학습의 종류는 자격

증 취득과 관련된 활동이었다. 세 사례에서 개인여가시간은 가능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활동기회 획득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중국 출신 여성들은 외모와 의사소통에서 취업가능성에 대한 상대적 제약이 적다. 많은 중국 출신 교포 및 이주여성들이 서비스업종사자로 취업하고 있는 것은 그 반증 자료다. 이에 비해 피부색과 체격, 언어문화권에서 차이가 많은 나라 출신의 여성들은 자격증 취득, 한국어교육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취업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들은 개인여가 시간조차 삶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채워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여성들과 면담 시 이야기하는 목소리와 표정에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한국어

또는 직업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역력히 읽을 수 있었다.

“미용기술 배우러 다녀요.”(4)

“요리 배우러 학원 다녀어요. 종이접기도 하구요. 요리, 한식요리사 자격증, 지난 겨울에 땀어요. ... 좋고, 더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요.”(11, 13)1)

“센터 와서 컴퓨터 공부하는 것 너무 좋아요. ○○씨(본인의 이름) 너무 행복해요. ... 중략... 센터 언니처럼 통역하고 싶어요.”(21)

4) 자녀교육에 대한 준비로서의 한국어 공부

아래의 3번, 16번 사례의 두 베트남 여성은 입국한지 각각 3년 5개월과 3년 7개월 되었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다. 두 여성은 자녀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적 여가활동으로서의 한국어공부는 남편을 비롯한 가족, 친족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그리고 취업을 위한 기본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리고 자녀의 교육 뒷바라지가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례의 자녀들은 3-4년 후면 초등학교에 입학연령에 이르게 된다. 곧 닥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이들에게 큰 과제일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자녀는 한국생활에서 삶의 희망이다. 자녀출산 이전에는 외롭고 힘들어하며 적응하지 못하던 여성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는 삶의 동기를 찾게 된다. 자녀는 한국생활을 하는데 있어 심리적 거점이기 때문이다(김상임, 2004).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을 떠나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동기에는 2세에게 보다 나은 삶을 이루게 해주고 싶은 꿈이 있다. 모국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불만을 갖게 만들며, 고국을 떠나 국제결혼이라는 돌파구를 찾는 이유가 되며(홍

달아기, 채옥희, 2007), 자녀에게는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 모성이 작용한다.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고 얘기한데 한국어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걱정이 되어서 남은 시간은 한국어 배우고 있습니다.”(3)

“한국 생활에 편하려고 그리고 자녀 때문입니다 제 자식한테 교육 잘 시키고 싶습니다.”(16)

5) 비용과 시간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개인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는지 질문했을 때,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24사례 중 13사례로 나타났다. 남편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하다(2), 여러 가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 만족한다(12),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좋다(11), 기분이 좋아진다(17), 나만의 자유시간이니까(19)라는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한국어공부와 관련하여 가족이랑 얘기가 통하기 때문에(3), 한국어 습득으로 한국생활에 대해 잘 알 수 있다(8),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다(10)는 답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답을 한 여성들은 개인여가활동이 만족스러운가라는 질문임에도 다른 개인여가활동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답을 했으며, 개인여가는 곧 한국어공부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은 그 이유가 주로 시간부족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으며, 자녀양육을 시간부족의 원인으로 꼽고 있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미용, 요리 모두 배우고 싶은데 다 배우고 싶어도 돈 많이 들고... 나중에 시험 봐야 돼서 힘들다. 요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4)

“만족하지 않아요. 시간과 경제 때문에 ... (9) 불만족합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 여가를 많이

1) 13번 사례의 응답내용이며, 11번도 유사한 응답을 하였음.

없어서 여가 활동도 많이 할 수 없습니다.”(14)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자식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못 합니다.”(16)

3. 가족여가활동

1) 유사한 가족여가활동의 종류

결혼이주여성이라 해서 일반가정과 여가활동이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여행, 장보기, 놀이터, 찜질방, 등산, 외식 등 다문화가정에서도 다양한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족같이 가서 옷 똑같은 것 입고 구운 계란을 좋아해서 잘 먹고 찜질방에 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는 시간 있을 때 아기와 함께 아빠와 함께 놀이터 자주 가요. 그네도 타고 가족시소 타면 재밌어요.”(18)

“남편이랑 대둔산 한번 갔어요. 남편 시간 없어요. 남편이랑 쇼핑하러 동대문, 서울 같이 갔어요.”(24)

“가끔 외식하고 쇼핑, 여행가요. 마트 일주일에 한번. 등산 많이 가고 (부부) 둘이 가요. 아이들이 다 커서. 외식 둘이 가요. 아이들 같이 갈 때도 있고 남편 친구집 자주 갔어요. 평소에는 부부 그냥 가요. 주말에는 상황 봐서 외식 (아이들과) 같이 해요.”(22)

2) 가족여가활동으로서의 음식만들기

가족여가활동으로서의 음식만들기는 일반가정의 경우, 가족경험공유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기대된다. 결혼이민자가정에서의 음식만들기는 이와 함께 상이한 두 나라의 식문화 통합이라는 점에서 부부권력구조상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언어배경이 다른 가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음식 만들었어요. 한국음식, 중국음식. 시간 있으면 항상 만들었어요. 반찬 맡구요. 한국음식 감자탕 만들어서 남편 나한테 한국음식 가르쳐요. 내가 남편 중국음식 가르쳐주고. 토요일, 일요일에 자주 해요. 아주 좋아요.”(8)

“시어머니가 음식만들기 가르쳐줬어요.”(23)

3) 가족여가활동의 제약- 금전적 비용

아직 신혼기라 할 수 있는 입국 7개월된 중국출신 여성은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여행과 같은 가족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국 5년 10개월의 베트남여성은 미래의 생활설계를 고려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가족여가활동을 자제하는 가정관리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 15살이라는 남편과의 많은 나이차는 남편의 잔여 경제활동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그러한 상황에서 아직 어린 자녀의 양육비용은 많이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족여가활동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냥 여행가고 싶어요. 여행 가면 돈 필요해요. 돈 없어서 못가요.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쇼핑도 하고...”(22)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거 거의 다 있을 거 같아요. 돈은 많아도 부족한 것 같아요. ... 정보는 우리 외국인한테 잘 모르잖아요. 센터 활동 같은 거 알려줄 수 있는데 무슨 활동 있는거 정보 부족해요.”(10)

“저는 어린 아기 키우고 남편 나이 있으니까 혹시 언제까지 회사 퇴사 하면 돈을 못 버니까 염려해요. 그래서 놀러 가는 것 많은 반대해요. 돈을 많이 들어서 싫어요. 놀러 가면 먹는 것도 사야 되고 00랜드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고 기름값이 많이 비싸요.”(18)

4)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으로 인한 여가활동 제약

남편의 긴 노동시간은 사용가능한 여가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가족원과의 여가시간을 낼 수 없다는 시간적 부족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 여가를 즐길만한 정서적인 여유조차 앓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남편 너무 바빠서 집에서 잠만 자요. 계속 잠만 자요.”(3)

“요즘에 남편이 함께 하나도 못해요. 직원들 술 마시고, 어디 못 가요. 아침 6시에 나가요. 저녁에 오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중략... 요즘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친척집 자주 못가요. 옛날에는(친목모임) 일주일 한두 번 만났는데, 남편이 친구랑 술 마시고 oo 다른 사람 못 만나요.”(21)

“남편 장사 때문에 진짜 시간 없어요... 남편 시간 부족해요. 경복궁 가고 싶어요. 서울에 재미 있는 곳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못가요.”(24)

“남편 시간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남편요. 의사소통 어려워요.”(23)

5) 이중역할의 과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

일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혼여성의 역할 과부담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출신의 두 여성은 각각 입국기간이 12년, 9년 1개월로 길어서 한국어가 능통했으며 개인과 가족여가생활에 대해 답변하는 중에 한국에서의 가정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거침없는 말투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받았다. 적어도 생활시간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여성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과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부족을 느끼는 일반적인 기혼 취업여성의 어려움과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저는 또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요.

다내고 싶어도 6시 이후엔 힘들다. 집안일 하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갈 수 없어요... 중략..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또 회사 생활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요즘은 경제적 문제도 조금 있고요.”(19)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토요일, 금요일까지 일해야 되니까. 토요일은 집안일 해야 하고, 일요일은 애기 봐야 되고, 보통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산에 갈 수 있는데 일을 하니까. 애기가 나한테 딱 붙으니까 갈 수 없어요.”(20)

“여행가고 마트가고, 운동해요. 거의 자주 못해요.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예전엔 많이 갔는데 요즘엔 자주 못해요. (예전엔 많이 간 이유) 아이 없을 때 둘이 가기 편하잖아요. 임신하고, 아이 낳고는 힘들어요. 요새는 시간 없어요. 지금은 아기가 어려서. 중략 (여행은 언제 갔어요?) 여기 저기 많이 다녔어요. 부부 같이. 처음에 한국왔을 때 시간 생기면 갔어요. (어디 갔나요?) 많이 다녔는데 한국말 잘 몰라서 어디 갔는지 잘 몰라. 시간 있으면 그냥 목적 없더라도... 그냥 드라이브(갔어요).”(2)

6) 시대와의 관계는 여가활동의 제약 또는 촉진요인

21번 사례는 결혼 당시 두 부부만 분가해 살고 있다가 최근 시어머니와 합가했고, 게다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매우 바빠져 이전과 매우 달라진 가정환경과 삶의 방식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장보기를 자주 하며 부부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가 장을 보게 되면서 이 여성은 이제 장보기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바쁜 남편 대신 시어머니와 함께 장보기를 하면서 집에만 있는 답답한 시간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로 인해 얼마 전까지도 누렸던 가족여가생활이 지금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로 살 때 장보러 자주 갔는데, 시어머니 합

게 살면서 같이 안가요. (장보기는 누가 하나요?) 시어머니가 해요. ... 중략 ... 잔소리 안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잔소리만 안하면) 어머니 모시고 (놀러) 가고 싶어요.”(21)

확대가족인 4번 사례는 함께 거주하는 시부모님 외에도 결혼한 고모, 형님 가족과 함께 매달 계모임으로 모임 뿐 아니라 김장, 여름방학 등에도 시부모를 중심으로 친척들이 자주 모여 가족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모시고 있는 시부모로 인해서 다른 친척들까지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접대를 위한 가사노동이 늘어날 수 있음에도 그런 점에 대해 전혀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18번과 23번 사례는 핵가족이지만 시댁을 중심으로 친척들이 함께 외식, 여행, 가족행사 등 가족여가활동참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추석, 명절 때 매달마다 가족 모임 계 있어요. 한달에 한번 계 해요. 김장 때, 여름에 되서 고모댁, 형님댁 우리 세 가족 같이 모여요. ... 중략 ... 매주는 그렇고 안보면 정도 떨어지고, 그렇게 안 만들면 보기 힘들잖아요.”(4)

“시간 있으면 시어머니 하고 많이 다녀요. 시아버님, 며느리가 마음에 들 때, 착해요. 그렇게 말해요. 다들 시아버님 말씀 많이 들어요.”(23)

“우리 형님들과 아주버님들 함께 간 것 많습시다.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먹고 술 먹고, 여행가면 금오산 모여서 밥 먹고 누구든 집에 내요.(연구자-어느 집이든 돌아가며 돈을 내요) 2주에 한번 1주에 한번 보았고, 시댁에 누구 생일 때, 제사 때 많이 가요. 재미있어요. 고향을 멀리 왔으니까, 가족 모임 친척집에 몰라 있으면(연구자-친척집에 모여 가족모임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니까...”(18)

7) 가족여가는 시간과 비용이 허락한다면 보다 자주

여가생활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경우, 가족

들과 모국인 필리핀에 가고 싶다는 사례 외에 거의 모든 여성들이 좀 더 자주,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금전적 비용 지출을 염려하여 가족여가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좀 더 단순한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가족들과 같이 더 많이 활동했으면 좋겠어요.”(2)

“시간과 돈 있으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9)

“자주 자주하면 재미있을 거 같아요.”(16)

“같이 쇼핑, 여행, 어디도 괜찮아요. 같이만 좋아요. 가족들 같이. 식사도 못해서 같이 먹고 싶어요.”(24)

“일 열심히 하고 가까운 데에 자주 놀러가면 좋겠습니다.”(1)

“그냥 지금 하는 것만큼만 밥 싸가지고 가서 먹고. 멀리 가고 그런 거는 돈 많이 들어서 싫고...”(4)

4. 모국에서의 여가활동

1) 여가활동 없이 일만 했어요.

모국에서 어떤 여가활동을 했는지 질문한 결과 영화, 여행, 음악감상이나 노래부르기, 쇼핑, 운동, 낚시, 소풍 등 다양한 응답을 하였다. 두 나라 사이의 여가문화 차이에서 올 수 있는 갈등은 여가활동의 종류의 차이에서 기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영화나 음악의 소재 차이, 관람 장소의 물리적 환경 차이, 서비스 구매방식, 행동예절 등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가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 또는 가족의 살림을 돕기 위해 오로지 일만 했다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남편의 직업적 지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남편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적 부족, 불안정한 직

업으로 인한 낮은 가계수입 등이 한국에서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역시 양호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어렸을 때 엄마하고 장사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여가활동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오. 없어요. 시간이 있으면 부모 도와주고...”(4)

“원래 바빠서 놀러가는 시간이 부족해요. 회사 일 때문에 그냥 집에서 쉬어요.”(5)

“엄마 집안일 도와줘요. 엄마가 새우일 하러가는데 같이 가서 도와줘요. 밤에 11시, 12시 들어가요.”(21).

“일했어요. 공장, 피부마사지, 미용실하고, 보험설계사 5년, 친구 같이 식당 장사.”(24)

5.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여가활동 참여시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여가활동을 할 때 모국과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는지 질문했다.

1) 한국문화의 내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
한국의 음주문화에 대해 좋지 않게 느끼거나 모국에서의 설날 문화가 풍요로운 데 비해, 한국의 설은 그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이외에 달리 하는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8번 사례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가족들에게 모국의 놀이문화를 알려주며 가족여가활동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사례도 있었다.

“한국, 술을 많이 먹어서 폭행하고(술문화) 술 안 먹으면 좋겠다고...”(18)

“문화차이 있어요. 중국에 설날, 어제 밤에 12시까지 만두 먹고 불꽃놀이 있고, 새 양말 신고 있고, 가족들 같이... 한국에 설날은 반찬 먹고 다음날 그냥 잤어요.”(24)

“한국놀이에 대해 잘 몰라 중국포커를 가족들에게 (공휴일) 가르쳐 주며 함께 합니다.”(8)

2) 문화 차이는 여가생활도 힘들게 해요.

정확히 여가생활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대상자들은 모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달라 여가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는지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 아래의 내용 중 음식은 식생활 영역이지만 여가생활에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식생활 문화를 포함하여 생활습관, 언어, 예절 등에 관한 문화적 차이가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생활습관, 음식 습관이 달라서 적응을 못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음식 맛 틀려요. 처음에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잊어 버렸어요.”(8)

“언어, 음식, 예의, 남편이랑 친구 만나서 말이 안돼요. 음식이 매워요. 매운 음식 잘 못 먹어요. 명절 절할 때 잘 안돼요. 다리가 아파요. 양반다리 아파요.”(23)

3) 한국어 능력은 여가생활을 위축시키기도
입국 7개월째인 22번 사례를 포함하여, 8번, 10번 사례를 보면, 한국어가 채 능숙치 않은 시기에 낯선 나라, 낯선 가정환경, 게다가 낯선 여가활동 상황에서 여성의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말 잘못하면 실례할까 봐. 그것도 느낌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기억 안나요.”(10)

“한국에 온지 며칠 안 될 때, 남편 모임 같이 간다 했는데, (한국어) 잘 몰라서 같이 안 갔어요.(실수할까 봐)”(8)

“가족들과 의사소통 안 되요. 요리할 때 먹고 싶은 거 서로 이해 안 되니까 만들 수 없어요. 용돈 더 주면 좋지요. 평소 쇼핑할 때 남편이 다 돈 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남편이 다 사와요. 지금 아직 한국어 익숙하지 않아서 남편 일상생활

남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22)

6. 여가와 가정생활과의 관련성

1) 생활만족도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와 가정생활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질문한 가정생활만족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조사대상자 24명 중 12명이 7점 정도라고 답했다. 0점이라고 답한 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생활만족도는 평균 7.07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중간 이상의 평가를 한 것으로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만으로 이들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우며, 면담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빈도
10	1
9.5	1
8	4
7	12
6	2
5	3
0	1
평균	6.77 (7.07) ²⁾

2) 시댁 가족과의 활발한 여가참여는 행복감을 높여요

시부모는 물론 시댁의 결혼한 형제들과 함께 빈번하게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하는 18번 사례의 베트남 여성은 면담 내내 질문에 대해 활기차게 답변을 해 주었다. 굳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도 시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

면서 시가에서 정서적으로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신체언어로 답하고 있었다. 물론 이 가정의 경우 행복감 또는 높은 생활만족도가 활발한 가족여가활동에 기인한다고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같은 긍정적인 만족감은 활발한 가족여가활동 이전에 결혼이주여성인 며느리에 대해 가족으로 인정하며, 여가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원과 지지를 해주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집 식구들 너무 잘해줘서 그래서 기뻐요. 난 행복해 생각해요. 저한테는 여기 두 번째 저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18)

“우리 가족은 항상 저한테 잘 해줘 좋겠어요. (좋아요) 딸내미처럼 해주고(그래요) 다른 가족도 (우리 가족처럼 며느리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친정 사람처럼 해주니까(좋아요). 다른 친구는 시어머니가 무시해요.”(18).

3) 여가생활 이전에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10번 사례는 생활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7점이라고 하면서 3점을 채우려면 신랑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현재 여행, 친구와의 만남, 외식 등의 여가활동에 만족하면서도 남편과의 관계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여가생활은 생활만족에 기여하고 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일상생활 영역이므로 생활만족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7점이예요 신랑은 말씀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점은 더 노력해야 되요.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또는 더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지금도 만족은 했는데. 왜냐면 시간될 때 같이 나가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남편하고 같이 밥먹고. 한국 남자는 원래 시무룩해요. 그것만.

2) 생활만족도에 '0'이라고 답한 극단적 1사례를 제외했을 때의 평균값

말없고 그런거(없으면 좋겠어요)…”(10)

“6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만족스러운 것도 많아요…중략 (앞으로 가족여가생활이 많아진다면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가?) 올라갈 수 있지만 10점은 안되요. 남편 때문에. 여가생활 하지만 집안생활 더 많이 보내잖아요. 자상한 남자 아니에요.”(2)

4) 아내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가족여가

어떤 경우에 가족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질문하였다. 아래의 5번 사례는 아직 한국에 온지 4개월 반 정도 밖에 안 되어 한국에서의 낯선 문화 속에서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 이야기하는 도중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을 자주 바라보고, 기대는 몸동작을 하였다. 남편은 아직 한국생활에 적응이 안 된 아내를 위해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면담이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실에 함께 왔으며, 통역을 해주었다. 아내의 한국생활에 있어 모든 영역에서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5번 사례의 남편은 아내의 정서적 지원의 방법으로서 가족여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22번과 24번 사례도 입국기간이 각각 7개월과 1년 3개월로 5번과 마찬가지로 짧았다. 결혼생활 초기의 적응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에서 맨날 심심해서 남편이 놀러가자고. 한 달에 1~2번. 우울해 할 것 같아서…중략 남편이 저번에 한번 눈물을 툭툭 흘리고 바람 쐬어주고 시간 내서 제주도…(갔다 왔어요)”(5)

“힘들 때, 남편 볼 때 부인 그냥 힘들구나 그렇게 보이면 가요. 자기 그냥 힘들어요 말해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아침 5시쯤 일어나요. 아이 학교, 고등학생 때문에 밥해 줘요.”(22)

“남편이 먼저 ‘자기야 여행가자’, ‘나 좋아’, 남편 쉴 때 같이 가요. 시간 있으면 같이 가고 싶어요. 시간 없어서 미안해해요. 당구장 동생 와

서 봐주고 남편 쉬면 가요.”(24)

5) 가계의 어려움은 개인여가생활로도 극복할 수 없어요.

남편이 현재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한 한 베트남 여성은 힘들 때 노래방 가서 맥주한잔 마시는 것을 개인 여가생활이라 이야기 하면서 하지만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되돌아오면 다시 머리가 아파진다고 말한다. 개인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바람이 있느냐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개인여가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오로지 신랑이 직장을 빨리 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노래방 가요, 가서 맥주 한잔 하구요.”(1)

“조금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머리 아픈데 생각 많은데 노래방 가면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남편한테 와서 얘기하면 머리 아파요.”(1)

6) 개인적인 여가시간 조차 괴로운 생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1개월 되는 베트남 여성은 남편과 분가해 있다가 최근 시어머니와 합가를 했다.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다른 가족들 역시 새 식구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 여성에게 개인적인 여가시간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며, 그저 남아도는 심심한 시간일 뿐이었다.

“집마당 돌아다녀요. 동네 한바퀴 운동해요…. 집에 와서 음악 들어요. 베트남 음악. 핸드폰으로 들어요. …TV 혼자 안봐요. 집에서 너무 심심해요.”(21)

7) 여가활동과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19번 사례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기간이 12년으로 매우 길고, 현재 직업도 가지고 있으며, 입국초기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비교할 때 안정적인

인 가정환경을 지니고 있다. 가족여가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만족도도 8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이 여성은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가생활, 적응하기에 충분한 결혼기간 등 어떤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부부, 친구들, 계곡도 가고, 바다도 가고, 절 구경도 하고 이번에는 5번 갔어요. 시댁 식구도 한번 가구요.”(19)

“여기는 내가 뭐 그냥 사는 저지 생활이고, 가족은 여기서 많이 행복해도 그리운 마음은 항상 있죠. 그냥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재미있게 살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친구들 만나고…”(19)

“8점. 사람이 다 행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파도처럼 이렇게 하는거, 올랐다 내렸다 힘든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19)

V. 요약 및 결론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이제 생존 차원에서의 한국생활 적응을 넘어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여가생활은 국내의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문화적 향유의 기회로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여가생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주제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체류외국인들의 문화생활이 매우 낮은 수준임이 단편적 사실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 옥천, 구미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추천받은 결혼이주여성 24명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

까지 면접을 하였다. 연구내용은 개인적 여가생활과 가족여가생활의 실태, 제약조건, 그리고 생활만족도와와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며, 일대일 면접에 의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내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 여가는 소범위 공간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취미활동들과 집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운동 및 기타 활동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여행과 같이 지역사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한 사례만이 자신의 개인적 여가활동이라고 답했다. 특히 음악감상이나 노래부르기, 집 안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이나 영화보기, 그리고 집 주변활동으로는 걷기나 산책 등의 가벼운 운동이 대표적인 여가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여가활동은 자녀교육, 경제활동 준비 등 새로운 생활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준비를 위한 학습활동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특히 중국 이외의 나라 출신 여성들은 외모 및 언어 차이로 인한 취업기회에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 이같은 열등한 취업조건으로 인해 이들은 미용, 요리, 컴퓨터 등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인적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녀교육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이주해온 여성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이 한국어 교육을 열심히 하는 데는 성공적인 자녀교육이라는 목표가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셋째, 여가활동 비용과 시간은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양육은 사용가능한 여가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특별히 결혼이주여성이나 결혼이주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정생활주기단계상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의 발달과업은 이들의 여가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여가활동의 비용은 결혼이주 가정의 평균적인 가계경제수준이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가정의 경우보다 여가계약 요인으로서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가족여가활동 종류는 일반가정과 유사했다. 여행, 장보기, 놀이터, 찜질방, 등산, 외식 등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가활동 중 음식만들기는 다문화가정의 가족여가로 가족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남편, 시어머니 등과 함께 하는 음식만들기는 다양한 문화의 통합, 가족원 사이의 의사소통 증진 등으로 가족원 사이의 대인적,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다섯째, 남편의 직업노동으로 인한 시간적 부족, 육체적 피로 등이 가족여가활동을 위한 여유를 앗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결혼이주가정의 여가생활에 있어 일반 가정과의 차이점은 시가 부모 및 친척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이다. 시가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와 시가 가족과의 여가활동과의 전후 인과관계는 밝힐 수 없으나, 시댁과의 관계, 시댁 친척과의 가족여가활동은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결혼초기 단계에 있는 남편이 아내를 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족여가를 활용하고 있었다. 남편들은 아내의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하는 외로움, 계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사노동의 과부담 등을 위로해 주기 위해 가족여가를 제안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결혼 초기 단계에서의 가족여가는 여성의 정서적 안정과 한국생활에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덟째, 결혼이주여성은 여가활동에 대해 만

족을 나타내면서도 남편의 정서적 표현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가활동은 비일상적 활동인데 비해 부부관계는 일상적 생활이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이것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크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남녀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은 문화적 관습의 차이로 인해 일반 가정보다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거주공간에서의 지위, 문화적 지위에 있어 우위에 있는 남편은 가족여가활동과 함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생활 및 가정생활 적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이 개인 여가생활로 참여하는 한국어교육, 취업관련 교육 참여는 여가생활시간보다는 필수적 생활시간의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러한 생활시간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육, 취업관련 교육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의 학습'에 포함되는 분명한 여가활동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한국어 및 취업교육은 낮은 문화권내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시간에서 이 같은 학습활동에 대한 시간사용의 중요성을 다문화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교육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한 기획 및 실시가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공평한 문화향유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시간 및 비용의 여가계약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편 및 다른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결혼이주가정에서 개인 및 가족여가의 중요성, 여가능력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교육, 시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 및 가족여가가 결혼이주가정에서 담당하는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화적 차이, 언어 의사소통능력으로 인한 여가생활에서의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 및 가족여가생활에 대한 탐구적 수준의 연구로 진행되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결혼이주가정의 개인 및 가족여가생활의 종류는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의 문화향유기회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 결혼이주여성의 개인 및 가족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 경기도내 국제 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 2)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 4) 김주숙(1980). 한국농촌여성연구-5개 부락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 5) 김하영(200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가유형, 여가유능감 및 가족여가 공유여부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65-95.
- 6) 농촌진흥청(2007). 농업인 삶의 질 수준 측정 및 복지정책 개발연구.
- 7) 문숙재, 윤소영, 윤지영(2005). 가족여가의 의미와 동기에 따른 여가만족도 분석-가정지향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31-39.
- 8) 문화관광체육부(2008).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 9) 민응기(2006).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여가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4), 285-295.
- 10) 주성훈(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11) 통계청(2010). 생활시간조사.
- 12) 환경미(1997).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가족복지대책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43-154.
- 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2007 여가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4)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2008). 창조적 다문화 시민사회 조성방안 연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15) 홍달아기, 채옥희(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16) Bella L.(1992). The Christmans in Perative. Halifax. NS: Fernwood Publishing.
- 17) Dumazedier J.(1967) Toward a society leisure. New York: The Free Press.
- 18) Homa, J. L.(1989). The Leisure Component

of the Parent Role. J. of Leisure Research
21(3), 228-241.

- 19) Kelly, J. R.(1983). Leisure identities and interactio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20) Pamicka, U.(1995). Leisure time and active recreation in families with pre-school age children in Biala Podlaska. World Leisure

and Recreation Journal 37(3), 42-44.

- 21) 여성노동가상법정자료실(2006). www.women-court.or.kr/womencourt/

- 투 고 일 : 2011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2월 9일